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탄생

금성관길에 '금나와락樂' 개장
7억 투입 2층 한옥상가 형태
중소농 안정적 소득보장 기대

지난 7일 나주시 금성관길에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 개장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금남점) '금나와락樂'이 문을 열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7일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이민준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금남점은 나주시 금성관길17 소재 부지 550㎡(연면적 160㎡)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한옥 상가형태로 건립됐다.

직매장 이름인 '금나와락樂'은 '나주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에 오면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지난 8월 명칭 공모전을 통해 채택됐다.

직매장 1층은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반영한 60여종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올해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기념품 10여종, 천연염색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코너가 들어섰다.

또 2층은 주민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로컬푸드 전통찻집이 마련돼 대추차, 쌍화차, 단팥죽 등 나주시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에서 로컬푸드를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료와 주전부리를 판매한다.

이날 개장식은 금남점 명칭 공모전 시상식,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통차 시음, 문화·공연행사 등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개장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시는 로컬푸드 금남점이 농산물 출하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금성관, 나주 목사내아, 곰탕거리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념사에서 "금나와락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금남점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5년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의 누적 매출액 100억원 돌파에 이어, 지난 9월 광주 롯데슈퍼 문흥점에 나주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입점해 300여 농가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공급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노후 경로당 에너지 효율 개선 나선다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에너지 복지 증진 협약

나주시가 지역 노후 경로당 에너지효율 개선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 전남대학교LINC+사업단(단장 김재국), (주)지혜와 비전(대표 정연수)과 함께 지역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시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경로당 및 기타 복지시설의 열악한 난방 여건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개발·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최상준 한국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 김재국 전남대LINC+사업단장, 정연수 (주)지혜와비전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내 나주시 지역 등록 경로당 600개소 중 건축연식이 15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3~40개를 선정, 에너지 효율 진단·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조사한 시설 중 2개소를 선정, 사업비 각 500만원을 투입해 창호교체·단열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 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빈곤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경로당은 자녀들과 떨어져 1인 독거가구를 이루는 현재의 가족 형태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며, 어르신들의 삶의 안식처"라며 "노후경로당 에너지 효율 진단 및 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경로당 에너지 복지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초등생 눈높이 맞춘 '저출산 문제 교육' 호응

나주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나주시는 지역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다. 〈사진〉

나주시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빛가람초 1~2학년, 노안남초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형극 '행복을 파는 가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주인공 '충만'이 엄마와 행복을 파는 가게를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형을 낳아 달라'고 조르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로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본격적인 인형극에 앞서 '생명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호기심과 집중도를 높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가족은 소중하다"며 "나중에 자라서도 훌륭한 아빠, 엄마가 되고 예쁜 아기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시청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극복, 양성평등 실현 방안 도출을 위한 '상반기 인구교육'도 실시했다.

또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구교육'을 통해 초·중학생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세대별 맞춤 교육(마술, 인형극, 토크콘서트)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번 인형극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생애주기와 세대별 맞춤 교육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빛가람 호수공원 버스킹 공연 대장정 마무리

시민 문화 향유 기여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을 위해 올해 첫 선을 보인 '빛가람 호수공원 버스킹'〈사진〉이 20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 2개소에서 열린 버스킹 공연이 총 20회 공연을 선보이며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로 각광을 받으며 인기를 누렸다.

버스킹 공연은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95개 팀(689명)으로 구성돼 전통사물놀이·팬플룻·힙합·트로트·색소폰·타악·한국무용·마술·버블매직 등 거의 전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로 첫 선보인 버스킹 공연이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지친 일상이 더 흥겹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매주 수요일 밤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제공해준 공연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한마당' 3000명 참여

나주시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어르신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나주실내체육관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 공로자에 대한 표창시상식, 기념식 등 1부 행사, 실버노래자랑, 장구·라인댄스, 사물놀이 등 2부 행사가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치매검진, 교복 사진 촬영, 전통놀이, 네일아트 등 어르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로효친 체험부스 10개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서정윤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나주시지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지역 노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경륜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 수범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